

## [보도자료] 쿠팡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 K-뷰티 전파 글로벌 한류 견인

2026. 6. 29.



쿠팡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 K-뷰티 전파 글로벌 한류 견인

- 6월 27일~28일 양일간 쿠팡 대표 K-뷰티 축제 ‘메가뷰티쇼’ 사전 홍보 부스 운영
- 뷰티 엔터테인먼트 ‘레페리’와 첫 협업 국내외 관람객 1만 명 이상 몰리며 인산인해
- 현장 방문객 대상 뷰티 증정품 및 18개 브랜드 체험 기회 제공

2026. 06. 29. 서울 - 쿠팡이 아시아 최대 글로벌 한류 복합 문화 축제로 손꼽히는 ‘2026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(BOF)’에 참여해 K-뷰티 홍보 전도사로 나섰다 밝혔다.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BOF는 K-POP, K-푸드, 뷰티, 패션을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다.

쿠팡은 지난 27일~28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OF에서 쿠팡의 대표적인 뷰티 축제인 ‘메가뷰티쇼’ 홍보 부스를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. 주요 K-뷰티 18개 브랜드의 인기 제품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. 방문객들은 기초 스킨케어 제품부터 립스틱, 블러셔 등 다채로운 색조 화장품을 체험했다. 이틀간 쿠팡 부스를 방문한 고객 수는 1만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.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, 아시아 등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다양한 K-뷰티 제품을 체험하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

쿠팡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 K-뷰티 전파 글로벌 한류 견인

BOF의 쿠팡 메가뷰티쇼 홍보 부스는 뷰티 크리에이터 육성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기업인 '레페리'와 협업해 조성했다. 행사 기간 동안 레페리 측 수십 명의 인플루언서가 방문했으며, 이들 인플루언서는 향후 메가뷰티쇼를 홍보하기 위한 티저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. 7월 중순 메가뷰티쇼 행사 기간에는 홀리, 김습습, 채소, 밤비걸 등 크리에이터와의 협업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.

풍성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했다. 방문객들이 현장에 마련된 QR 코드를 통해 '메가뷰티쇼' 티저 페이지에 접속하면 증정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. 증정품은 센카, 닥터지, 이자녹스, 빌리프 등 부스에서 체험한 브랜드의 세럼, 마스크, 클렌징폼 등 선호도가 높은 상품으로 랜덤 구성됐다.



쿠팡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 K-뷰티 전파 글로벌 한류 견인

쿠팡은 오는 7월 13일~8월 3일 메가뷰티쇼를 진행할 예정으로, 이번 행사를 통해 사전 홍보에 힘을 기울였다. K-뷰티를 비롯한 총 5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한다. 연 3회 정기적으로 선보이는 '메가뷰티쇼'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파격적인 혜택으로 제공하는 쿠팡의 대표 뷰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. 지난 4월에는 성수동에 버추얼스토어를 오픈해 3000명 이상의 K-뷰티 팬들이 방문하는

등 큰 인기를 끌었다.



쿠팡,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서 K-뷰티 전파 글로벌 한류 건인

서울에서 축제를 찾은 한 관람객은 “뷰티 박스 등 풍성한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쿠팡 메가뷰티쇼를 자주 찾는데, 부산에서도 다양한 인기 상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”고 말했다. 부산 현지 주민인 또 다른 고객은 “쿠팡을 통해 뷰티 제품 로켓배송을 이용한 지 4~5년이 넘었다”며 “품질 좋은 상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어 자주 애용하고 있다”고 했다.

쿠팡 관계자는 “이번 BOF 참여는 K-POP을 즐기러 온 고객들에게 쿠팡 뷰티의 우수성과 다채로운 혜택을 직접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”라며, “오는 7월 13일부터 시작되는 ‘메가뷰티쇼’에서는 1+1 득템 찬스, 즉시 할인, 사은품 증정 등 50여 개 브랜드의 역대급 혜택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”고 전했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